

예언의 영: 한밤중의 외침

하박국의 두 서판

Jeff Pippenger

2012-10-13

해명의 말씀

최근 우리는 우리 웹사이트에 수록된 여러 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하박국의 두 돌판」의 전사문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구두 발표를 문서 발표로 바꾸는 일은, 구두 발표를 문서 발표로 전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와, 더 나아가 그 자료를 웹사이트의 여러 언어로 최종적으로 번역하는 데 따르는 필연적인 문제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처 이해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큰 과업이다. 우리는 아흔다섯 편의 발표 가운데 첫 번째 것에 대한 교정 편집을 막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절차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1989년부터 우리의 현재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 기별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과 관련이 있다.

약 십오 년 전의 강연들 가운데에는 이해가 아직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진리들이 있었다. 그 진리들 가운데 내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둘째 천사의 도래이다. 나는 그 당시에, 1843년의 종료와 맞물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밀러가 전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그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둘째 천사가 도래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이라는 해가 1843년 3월 22일에 시작하여 1844년 3월 22일에 끝난다고 확인해 준다고 그가 믿었던 시간 계산에 따라 일하였다. 그는 마침내 두 개의 성스러운 도표 위에 제시되었던 세 예언이 1843년이라는 해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 그 해가 1844년 3월 22일에 끝난다고 믿었다. 그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어 있었다.

다니엘 12장의 1335일에 관한 세 예언과,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2520년, 그리고 다니엘 8장의 2300일은 밀러에 의해 1844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후 주께서는 새뮤얼 스노우를 인도하시라, 그 예언들이 1843년이 아니라 1844년에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스노우는 또한 가라이트식 시간 계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밀러가 사용해 오던 시간 적용법이 아니었다. 밀러는 해를 봄에서 다음 봄까지로 정하는, 라비 전통과 춘분에 기초한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박국의 두 서판을 제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밀러의 경험을 사용하여 1844년 3월 22일을 둘째 천사의 도래이자 지체의 때의 시작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천사의 도래가 프로테스탄트들이 밀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며, 다음의 구절이 나의 준거점이었다.

“1842년 6월, 밀러 씨는 포틀랜드의 캐스코 스트리트 교회에서 그의 두 번째 연속 강연을 하였다. 나는 이 강연들에 참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다. 이는 내가 낙담에 빠져 있었고 나의 구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강연회는 첫 번째보다 그 도시에서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러 교파가 밀러 씨를 향해 자기 교회의 문을 닫았다. 여러 강단에서 행해진 많은 설교들은 그 강연자의 이른바 광신적 오류를 폭로하려 하였으나, 염려 가운데 귀 기울이는 청중의 무리가 그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많은 이들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회중은 이례적으로 조용하고도 주의 깊었다.” Life Sketches, 27.

나는 문들을 닫으심이 밀러의 기별에 대한 문을 닫으신 것으로서 첫째 천사의 거절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임을 이해하였고, 또한 시간 계산에 관한 랍비적/춘분 기준의 산정에 대한 밀러의 이해와 일치하여 1844년 3월 22일이 1843년의 끝을 표시한다고 가정하였다. 1842년 6월 포틀랜드에서의 밀러의 제시는 실제로는 점진적인 거절을 식별해 주는 이정표이며, 그 거절은 마침내 1844년 4월 18일에 종결되었으나, 그 제시들이 있던 당시에는 우리가 시간 계산에 대한 사무엘 스노우의 카라이파적 산정을 적용한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발표의 교정 편집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당시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바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모순되기도 하고, 모순되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단지 둘째 천사의 점진적인 도래에 대한 강조이며, 또한 이 기별이 점진적으로 개봉되는 것에 대한 예증인데,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도 그러하였던 바와 같다. 이 해명하는 주석은 1844년 4월 19일을 첫 번째 밀러파의 실망으로 동일시하는 우리의 견해와 과거에 가르쳐졌던 내용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기별은 모두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전 어느 때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우리는 문필과 음성으로 그 선포를 울려 퍼지게 하되, 그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르게 하는 예언들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 기별들을 출판물과 강연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야 하며, 예언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04.

하박국의 두 서판 95장 중 1장

하박국의 두 서판과 한밤중의 부르짖음에 대한 서론

이 연재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두 도표, 곧 1843년 도표와 1850년 도표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한밤중의 부르짖음을 제자리에 놓는 일로 시작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의 많은 제시들은 이 기별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복습이 될 것이나, 우리가 이 기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연구할 수 있는 연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사상을 제시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한밤중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되, 엘렌 화잇의 첫 번째 이상에서 발견되는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Christian Experience and Teachings』 57쪽의 첫 문단을 읽어 보자.

1844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첫 공개 이상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메인 주 포틀랜드에서 하인스 부인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로서, 그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굳게 연합되어 있었다. 우리 다섯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가정 제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전에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화이트 자매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 다섯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한 나타남도 반대하고 있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모두 교회를 대표하는 여성들이었으며, 또한 다섯 명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관찰일 뿐이다.

나는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땅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듯하였다.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재림 신자들을 찾아보려고 돌아보았으나,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말하였다. "다시 보고, 조금 더 높이 보라." 이에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 높이 곧게 나 있는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에서 재림 신자들은 그 길 끝 저편에 있는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길의 시작점 뒤편에 밝은 빛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은 한밤중의 부르짖음(Midnight Cry)이라고 하였다. 이 빛은 온 길에 비치어 그들의 발을 밝혀 주었으므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이 자기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께 눈을 고정하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였다. 그러나 이내 어떤 이들은 피곤해져서 그 도성이 아직도 아주 멀리 있다고 말하며, 벌써 그곳에 들어갔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영화로운 오른팔을 드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한 빛이 나와 재림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추었으며,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다른 이들은 경솔하게 자기들 뒤에 있는 그 빛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을 이처럼 멀리까지 인도해 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이 꺼져 버렸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완전한 흑암만 남게 되었으며, 그들은 걸려 넘어져 표적과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래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그 길에서 떨어졌다.

윌리엄 밀러와 한밤중의 외침

이 첫 번째 발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요점을 확립한 후, 1844년 12월에 열린 로우 햄프턴 재림신자 대회를 논의할 것이다. 이 대회에서 몇몇 밀러파 신자들이 모였고, 윌리엄 밀러는 한밤중의 외침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였다. 여기서의 논리는, 이 환상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윌리엄 밀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달에 윌리엄 밀러는 그들 뒤에 비추고 있던 빛, 곧 한밤중의 외침을 부인하였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아래의 악한 세상으로 이르는 길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역사적 증거는 밀러주의자들이 모두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고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 주며, 이것은 그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우리는 윌리엄 밀러가 한밤중의 외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밀러는 한밤중의 외침이 다니엘 8:14와 요한계시록 14:6-9의 심판의 때의 기별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1830년대 초에 선포하기 시작한 기별이 곧 한밤중의 외침, "보라, 신랑이로다"이며, 예수께서 신랑으로서 세상에 오고 계신다고 믿었다.

밀러파의 역사 대부분에 걸쳐, 그들은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자정의 부르짖음은 그들이 선포해 온 기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844년 여름에 이르러 새롭고도 올바른 이해가 나타났으니, 곧 자정의 부르짖음은 제칠월 운동이며, 예수께서 제칠월 열째 날에 오실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참된 자정의 부르짖음이었다. 밀러가 1844년 12월에 참된 자정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였을 때, 그는 1844년 여름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단지 1830년대부터의 일반적인 기별이었다는 자신의 이전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자정의 부르짖음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중대하다. 만일 그대가 밀러파가 이해한 바와 같이 2520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자정의 부르짖음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밀러파가 이해한 바와 같이 자정의 부르짖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대는 길에서 떨어져 아래의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발표에서 우리는 오늘날 재림교회가 공공연히 거부하는 도표상의 몇 가지 진리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연구소와 대부분의 재림교 신학자들은 2520을 거부한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우선 엘렌 화잇이 2520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연구소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또한 매일에 대한 개척자들의 이해를 거부한다. 우리는 매일이 이교주의라는 개척자들의 이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예언의 신을 거부하는 것임을 보일 것이다. 연구소는 또한 나팔들, 곧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한 개척자들의 이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나팔들에 대한 개척자들의 이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예언의 신을 거부하는 것임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1290과 1335에 관하여 기껏해야 모호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다. 1335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가 없다면, 1844년 3월 22일에 시작된 지체의 때를 식별할 성경적 정당성은 없다. 지체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역학을 파악할 수 없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아래의 악한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먼저 예언의 신의 분명한 지지라는 관점에서 이 진리들을 도표 위에 제시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밀러 운동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한밤중의 부르짖음을 일으켰는지를 보아야 한다.

밀러 운동의 역사와 첫째 천사의 도래

우리는 밀러주의 역사를 제시하고 1798년을 다루기 위하여 Uriah Smith의 *Thoughts on Daniel and Revelation*, 521쪽에서부터 시작한다. Uriah Smith는 이렇게 기록한다. "Revelation 10의 사건들의 연대는 이 천사가 Revelation 14의 첫째 천사와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분명히 확정된다." Revelation 10에서는 한 힘센 천사가 그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Ellen White는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작은 책은 다니엘서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10장의 끝에 이르면,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것은 그의 입에는 달고 그의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요한은 밀러주의 역사를 대표하는데, 거기서 다니엘의 기별은 달콤하지만 쓰라린 실망으로 이어진다. 선구자들에 따르면, Revelation 10의 힘센 천사는 Revelation 14의 첫째 천사이다—곧 그들은 동일한 천사이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또한 윌리엄 밀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사업,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사업을 성취함으로써 자정 외침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던 그 천사이기도 하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은 다니엘 8:14를 가리킨다. 이 천사들은 성취된 사업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밝혀 준다.

우리야 스미스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사건들의 연대는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분명히 확정된다.” 그는 무엇이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지를 설명한다. 둘 다 선포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고, 둘 다 큰 음성으로 그 선포를 발하며, 둘 다 창조주를 가리키는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둘 다 시간을 선포한다. 곧 한 천사는 다시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한다. 요한계시록 14:6의 기별은 끝의 때가 시작된 이편에 위치한다.

우리야 스미스는 끝의 때가 1798년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그 이후에 온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6의 기별은 끝의 때의 시작 이편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선포이므로, 따라서 마지막 세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바울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전파하지 않았다.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도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다. 바울은 막연히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루터는 그것을 적어도 자기 시대에서 삼백 년 이후의 일로 두었다. 더욱이 바울은 어떤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전파에 대하여 교회에 경고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3에서 바울은 먼저 배도가 이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작은 뿔, 곧 교황권을 제시하며, 그의 패권이 지속되는 전 기간, 곧 1260년 동안을 경고로 덮고 있는데, 그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1798년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그쳤다. 끝의 때가 시작되었고, 작은 책에서 인이 떼어졌다. 그때 이래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가 나아갔다. 우리야 스미스는 말한다. “당신이 그것을 보려 한다면, 1798년 이래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아갔다.” 1798년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역사 속에 도래하는데—이것이 선구자들의 이해이다. 그때 이래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선포해 왔고, 10장의 천사는 바다와 땅 위에 서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을 맹세하였다. 그 동일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쪽의 위치를 정하는 모든 논증은 다른 한쪽에도 유효하다. 현 세대는 이 두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고 있다. 재림의 설교에서, 특히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의 온전하고도 상세한 성취가 시작되었다.

스미스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1798년에 도래한 것과 관련하여 1840년과 1844년을 표지하지만, 또한 기별이 능력을 받는 1840년에도 첫째 천사를 표지한다. 재림의 설교에서, 특별히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것들의 완전한 성취가 시작되었다.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둔 천사의 위치는 그의 선포의 광대한 범위를 나타낸다. 그 기별은 대양을 건너 여러 나라로 확장될 것이었으며, 재림 선포는 실제로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이르렀다. 1840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선교지로 전파되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함께 성경 예언의 연일 원칙이 입증되었을 때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러 운동의 역사와 한밤중의 외침의 역학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역사적 사건: 1833년과 별들의 낙하

1833년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엘렌 화잇은 『각 시대의 대쟁투』 333쪽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833년, 곧 밀러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구주께서 당신의 재림의 표징으로 약속하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마태복음 24:29. 또한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계시록 6:13.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의 대유성우에서 두드러지고도 인상적인 성취를 보았다.”

윌리엄 밀러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833년 여름, 어느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나는 책상에 앉아 어떤 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하러 나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가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감동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강력하여, 나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며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왜 못 가느냐?’는 응답이 들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나의 온갖 변명이 떠올랐다. 나의 능력 없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의 고통이 너무도 커서, 나는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만일 그분께서 길을 여셔 주신다면, 나는 가서 세상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길을 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 내게 들려오는 듯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만일 어느 곳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해 달라는 초청을 받게 된다면, 나는 가서 주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의 모든 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 그런 초청을 받아 본 적이 없었고, 나의 시련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어느 사역지로든 초청받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로부터 약 반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아직 그 방을 떠나기도 전에, 내 집에서 약 16마일 떨어진 드레스덴의 길퍼드 씨의 아들이 들어와, 자기 아버지가 나를 보내 달라고 하며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 이튿날 그들의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가 와서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즉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나는 곧바로 주님께 반항하며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소년을 남겨 두고, 큰 고통 가운데 근처의 숲으로 물러갔다. 그 후 나는 약 한 시간 동안 주님과 씨름하며, 내가 그분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안도도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그토록 빨리 그것을 깨뜨리려 하느냐?’는 말씀이 내 양심에 새겨졌고, 그렇게 하는 일이 지닌 지극한 죄악됨이 나를 압도하였다. 마침내 나는 복종하였고, 주께서 나를 불러 주신다면 가겠노라고 주님께 약속하였다.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소년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점심 식사 후까지 머물렀고,

나는 그와 함께 드레스덴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밀러가 1833년 여름에 공개적으로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경위이다. 1833년 12월에는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그의 기별에 엄숙함을 더해 주었다.

1840년: 예언의 성취와 오스만 제국

1840년에 엘렌 화잇은 예언의 두드러진 성취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구절은 예언의 신에서 흔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어떤 이들은 유라이어 스미스가 그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에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녀는 1840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예언 성취의 연속, 곧 별들의 낙하와 암흑일을 포함한 사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 성취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조시아 리치의 단순한 인간적 예측이 아니라 성경 예언을 가리킨다. 그보다 2년 전, 재림을 전파하던 저명한 목사 조시아 리치는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서를 출판하여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세력은 1840년 8월 11일에 전복될 예정이었다. 지정된 때에 터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연합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두게 되었다. 그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허다한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 원칙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더해졌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설교하고 출판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우리에게 말해진 바에 따르면, 우리아 스미스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1798년에 도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와 동일한 천사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것은 그의 입에서는 달게 될 것이었다. 밀러주의 운동의 기별은 성경 예언의 일년일일 원리에 근거하여 오스만 제국의 붕괴를 2년 동안 예고한 끝에, 1840년 8월 11일에 달게 되었다. 그 사건이 정확히 성취되었을 때, 그들이 선포해 오던 기별은 그들의 입에서 달게 되었다.

1840년 8월 11일, 그 기별은 그들의 입에서 달게 되었다. 요한은 내려온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 천사는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오며,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동일하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는 끝의 때인 1798년에 도래하지만, 그의 기별은 1840년에 능력을 입는다. 엘렌 화잇은 그 사건이 알려지자, 무리들이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들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1930년대 이래로, 1919년에 시작되어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 재림교는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규칙들—곧 성경 연구의 증거 본문 방법—을 거부해 왔다.

1843년 도표와 지체의 때

역사상 다음 이정표는 1842년 5월에 제작된 1843년 도표이다.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지도되었으며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그 수치들은 그분께서 원하신 그대로였으며, 그분의 손이 어떤 수치들의 오류를 덮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 도표는 1842년 5월에 제작된 예언적 이정표이다. 1842년 6월에 개신교회들은 그 문을 닫았고, 둘째 천사가 도래한다.

『증언집』 제1권 21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42년 6월, 밀러 씨는 메인 주 포틀랜드의 캐스코 스트리트 교회에서 두 번째 연속 강연을 하였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러 교파가 밀러 씨에 대하여 자기 교회들의 문을 닫았다.” 엘렌 화잇은 우리에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추론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 준다. 개신교회들이 그 문을 닫게 된 원인은 이 도표의 도입이었다. 5월에 이 도표가 소개되었을 때, 개신교회들은 밀러파 사람들이 미혹된 광신자들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에는 첫 번째 실망이 온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42년 이른 시기에, 이 예언 가운데 주어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예언 도표를 준비하도록 찰스 피치에게 시사하였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직전에 죽은 찰스 피치는 이 역사에서 주께 쓰임을 받았다. 그는 그 도표를 준비하였고, 그것은 1842년 5월에 출판되었다.

이 도표의 출판은 하박국의 명령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환상의 성취에 명백한 지체가 있다는 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동일한 예언 안에는 지체의 때가 제시되어 있다. 실망이 있는 후에, 다음 성구는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마지막에 이를 말할 것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체의 때는 첫 번째 실망으로서, 1844년 3월 22일에 이른다. 밀러주의자들은 성경적 시간 계산을 사용하여 1843년에 세상의 끝을 예언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때까지 오시지 않으셨을 때, 첫 번째 실망이 1844년 3월 22일에 닥쳤다. 그것이 곧 지체의 때이다.

이것은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과 다니엘 12장에 나타난 더딤의 때이다. 다니엘 12:11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라고 말한다. 선구자들은 이교주의가 508년에 클로비스가 서고트족을 무찌름으로 제압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이교주의가 제거되고 교황권이 세워진 때로부터(30년 후인 538년), 1290일이 있으리라. 그 다음 절은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한다. 508에 1335를 더하면 1843이 된다. “1843년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1335는 더딤의 때를 가리키며, “기다려서 1843년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다. 엘렌 화잇이 그러하듯이, 그 ‘매일’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를 당신이 고수한다면, 이것은 분명하다.

더욱 분명히 하자면, 이사야 30:18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이시며, 그분은 더디 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 오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심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심판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니엘 12:12과 일치한다. “기다려서 1335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랑은 1844년 3월 22일에 더디 오신다. 첫 번째 실망에 이른 후 기다리는

데에는 복이 수반된다. 네가 여기에 이르면, 너는 기다려야 한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박국 2:3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마지막에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1335에 이르는 복은 주께서 한밤중의 부르짖음을 성취하실 이 역사에 이르는 복이다.

모든 사람이 자정 외침에 참여하도록 허락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밀러파와 함께 길을 갔다. 자정 외침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는 이러한 형제들을 그 운동에서 분리하신다. 첫 번째 실망은 자정 외침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엘렌 화잇에 따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을 향한 길에서 떨어지고 만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 부여

『초기문집』 23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광선은 해처럼 밝게 보였고, 나는 천사들의 음성이 ‘보라,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한밤중의 외침이었으며, 이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구자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1798년에 도래하였으나 1840년 오스만 제국의 봉기와 더불어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이해하였다. 모든 기별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도래하며, 그 후에 능력을 부여받는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3월 22일에, 개신교 교회들이 밀러 운동의 기별을 거부하고 그 문을 닫았을 때 도래한다. 한밤중의 외침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하며,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그것에 합류할 때 능력을 부여받는다. 모든 기별은 역사 가운데 도래하며, 그 후에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밤중의 외침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다. 낙심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해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아니었고, 정반대로 그는 그것을 가장 나중에 받았다. 그는 그 기별을 이해하는 데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나, 사무엘 스노우가 가장 먼저였다. 이전에 그 사업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그 외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 크게 높이는 일에는 가장 나중이었다. 역사적으로,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받아들인 마지막 사람은 윌리엄 밀러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76쪽에서: 자정 외침의 능력이 부여되는 동안 약 5만 명이 교회들을 떠났다. 밀러의 사업은 교회들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이 주제에 관한 모든 각성을 억제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강단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 신자들에게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을 특권은 물론, 사교 모임에서조차 그들의 소망에 대하여 말할 특권까지도 부인하였다. 오늘날 이 기별을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개인의 가정에서조차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여기 밀러 운동에서 예표되어 있다.

신자들은 큰 시련과 당혹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분리되기를 주저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억압되고 예언들을 탐구할 그들의 권리가 거부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배척하려 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여겨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전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다. 1844년 여름, 약 5만 명이 교회들에서 탈퇴하였다.

밀러의 이해와 참된 한밤중의 부르짖음

댐스티그트 장로의 저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별과 사명의 기초』에 따르면, 밀러는 다니엘 8:14과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선포가 곧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한밤중 외침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기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밀러는 전 역사가 곧 한밤중 외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엘렌 화잇은 한밤중 외침이 특정한 시점에서 성취되었다고 진술한다. 사무엘 스노우는 한밤중 외침이 일반적인 기별이었다는 밀러주의 가르침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표에 “참된 한밤중 외침”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먼저 그 기별을 받았고, 이전에 사업을 이끌어 왔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일에 마지막으로 참여하였다. 1833년 이래로 그 사업을 이끌어 왔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8월에 자정 외침의 기별이 이르렀을 때 그것으로 인해 고심하였다. 그는 교회들로부터 분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고, 여러 해 동안 자정 외침에 관하여 또 다른 이해를 가르쳐 왔었다.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주의 재림의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도 결코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출판한 모든 강연문에는, 표제지에서 보이듯이, 대략 1843년이라고 되어 있다. 내가 행한 모든 구두 강연에서 나는 변함없이 청중에게, 내 계산에 착오가 없다면 그 기간들은 1843년에 끝날 것이나, 그 끝이 그때 이전에 이를 가능성조차 없다고는 내가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842년에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정확한 연도를 매우 단정적으로 전파하였고, 내가 ‘만일’을 넣는다고 하여 나를 비난하였다.” 1842년 5월에 1843년 도표가 출판되었고, 형제들은 밀러에게 그의 제시에서 그 ‘만일’을 제거하라고 말했다.

밀러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공 언론은 또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확정적인 날, 곧 4월 23일을 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므로 그해 12월에, 나는 나의 계산에서 아무 오류도 볼 수 없었으므로,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의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출판하였다.” 밀러는 이미 일곱째 달 열째 날에 대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며, 사무엘 스노우가 이 결론을 사용하여 한밤중의 외침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 밀러는 그것에 관하여 기록해 두었다. 1844년 10월 22일을 특정하는 데 사무엘 스노우가 사용한 논리를 조합하도록 주께서 사용하신 이는 밀러였다.

밀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1843년 한 해 동안, 언론과 일부 강단으로부터 나와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가장 격렬한 비난이 퍼부어졌다. 우리의 동기는 공격을 받았고, 우리의 원칙은 왜곡되었으며, 우리의 인격은 중상되었다.” 시간이 흘러 1844년 3월 21일이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실망은 컸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걸지 않았다. 이때 이전, 곧 1840년부터 밀러주의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직 5만 명만이 남아 있었다.

밀러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 이전인 1843년 가을에, 나의 몇몇 형제들이 여러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재림신자들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일로 나는 크게 근심하였다. 그 영향이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며 성경을 억지로 비튼 것으로 여겼다.” 밀러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씨름하였고, 이로 인해 참된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에게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관행은 퍼져 나갔고, 교회들은 그들에게 문을 닫아 걸었으며, 적개심을 조성하고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을 각기 속한 교회들로부터 분리시켰다.

공표한 시기가 지나간 후, 밀러는 정확한 기간에 관하여 자신의 실망을 인정하였으나 그의 믿음은 굳게 지켰다. 그는 제칠월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1844년 여름 동안 서부에서 그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모세 율법의 절기 준수가 그 달을 가리킨다는 내용으로 십팔 개월 전에 쓴 한 통의 편지 외에는 이 운동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주제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리라고도, 그러한 증거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시금석이 되리라고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는 1844년 10월 22일이 되기까지 이삼 주 전까지는 그 운동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았다. 1844년 10월 6일 하임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밀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을 제칠월에서 봅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나는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조화와 일치를 봅니다. 그것은 내가 오래도록 기도해 왔으나 오늘에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하라. 스노우 형제, 스토티스 형제, 그리고 다른 이들이여, 내 눈을 열어 준 그들의 도구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거의 본향에 이르렀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영광.”

그 후 밀러는 한밤중의 외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광신주의라고 불렀다. 담스테흐트는 스노우가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기본 개요를 밀러의 초기 저작에서 얻었다고 지적한다.

1844년 3월에 출판된 스노우의 계산은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천막 집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곳에서 그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많은 밀러파 신자들을 움직여, 그들의 선교적 노력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제칠월 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밀러파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으나, 예상된 사건이 있기 몇 주 전에 그 운동에 가담하였고, 스노우의 견해가 인쇄되어 지지를 받도록 허용하였다.

한밤중의 외침과 그 여파

엘렌 화잇의 첫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 가는 길 위에 있으며, 그들 뒤에는 ‘한밤중의 외침’이라 불리는 빛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새뮤얼 스노우가 제시한 기별은 이해될 필요가 있다. 1842년 5월에 300명의 설교자를 위하여 300장의 도표가 인쇄되었다. 1844년 3월 22일, 첫 번째 실망 이후 그 도표는 제쳐졌고, 많은 사람이 그 운동을 떠났다. 남아 있던 자들은 기다려야 하였다.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스노우는 주께서 1844년 10월 22일, 곧 속죄일에 오실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기별을 선포하도록 촉구하였다.

조셉 베이츠는 엑서터 천막집회가 끝난 후 열차 객차들을 지나 걸어가던 중, “보라, 신랑이 오신다!”라고 되풀이하여 외치는 음성들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이 운동은 두 달 만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으로 이어졌다.

담스티그트는 1844년 12월 28-29일 하임스와 밀러가 관련된 로우 햄프턴 재림신자 대회에 대해 논평한다. 하임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독교 세계를 일깨우며,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몇 주 후 재림교 출판이 재개되었고, 하임스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였다. 밀러는 점차 극단적인 닫힌 문 개념을 버리고 자정 외침에 대한 그의 원래 견해로 돌아갔다. 바로 그 달에 엘렌 화잇은 첫 번째 이상을 받았는데, 그 이상은 자정 외침을 거절하는 자들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이상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윌리엄 밀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윌리엄 밀러의 최종 시험과 유산

초기문집(Early Writings) 257쪽에서: “그때 나의 주의가 윌리엄 밀러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당혹해 보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염려와 고통으로 놀려 있었다. 1844년에 연합되어 사랑 가운데 있던 무리는 그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고, 서로 대적하며 차갑고 배도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이것을 바라볼 때, 슬픔이 그의 힘을 소모시켰다. 나는 지도자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로 조슈아 하임스였으며, 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문맥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이다. 밀러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그 빛에서 돌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곤 하였다. 인간의 영향력이 그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였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의 영향력을 붙들어 두었다. 마침내 밀러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 곧 안식일을 거슬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실망을 설명해 주고 과거 위에 빛과 영광을 비추어 주었을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는 신적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수고와 연령으로 쇠약해진 그는, 그를 진리에서 막아선 자들만큼 책임이 있지는 않았다. 그 죄는 그들에게 있다. 만일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설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이토록 깊은 사랑을 고백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이 결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그를 진리에서 끌어낸 자들에게서 그를 숨기시기 위하여 무덤 속에 감추셨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하였던 것처럼, 밀러도 하늘 가나안에 곧 들어가려 할 때 잘못하였다. 다른 이들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다. 그 일에 대하여는 다른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종의 귀중한 티끌을 지키고 있으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나아올 것이다.”

결론: 오늘날을 위한 교훈

결론적으로, 윌리엄 밀러는 세상 끝에 있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예표한다. 엘렌 화잇의 첫 번째 이상은 그녀 자신의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의 시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 끝에 이르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자정 부르짖음의 빛을 거절할 것이다. 자정 부르짖음의 빛은 이 역사를 이해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 실망은 잘못된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자들을 밀러 운동에서 정결하게 제거하였고, 사람들을 지성소로 인도할 시련의 경험을 위하여 준비시켰다. 첫 번째 실망에 이르는 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릴 때에만 복이 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산출하시어 그들을 지성소로 모으시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자정 부르짖음을 거절하고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다.

윌리엄 밀러는 세 가지 실수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 시험으로 시험을 받는다. 그의 첫 번째 오류는 1844년 12월에 자정 외침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의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세 번째 실수, 곧 안식일을 거부하는 데로 이끌었다. 세상 끝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정 외침의 역사와 옛 길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게 되며, 자정 외침의 기별과 역사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서 시작되는 밀러의 세 단계 시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첫 번째 실망에서 두 번째 실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예언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곧 2300일 예언(“비록 목시가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과 2520이다. 2520을 거절하는 것은 한밤중의 외침을 거절하는 것이다. 한밤중의 외침을 거절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강연에서 이 점을 더 다루겠습니다.